

지역 소식통

고창군 농촌 신활력추진단

고추축제서 농식품 홍보

고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추진단(베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이 '제27회 고창해풍고추축제'에 참여해 농식품 홍보와 판촉 이벤트를 연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중 7개소가 직접 제조 생산한 다양한 농식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또 구매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축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돌려주어 축제 성공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고추축제와 연계 이벤트로 참가 농식품 가공업체 제품에 대한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게 된다.

고창해풍고추축제는 고창의 대표 특산물인 해풍고추를 주제로 한 농식품 축제로, 해풍고추 품평회·경매, 해풍고추 직거래 장터, 해풍 고추비빔밥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치매안심센터

낮 시간 치매환자 쉼터 운영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가족 삶의 질 향상과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에게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해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 낮 시간동안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은 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인지선별검사,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노인 우울척도 등의 검사가 진행된다. 인지학습, 체조, 요리, 원예 등 다양한 인지자극 활동으로 구성돼 있어 대상자의 기억력 강화와 집중력 증진을 돕는다.

한편, 시 치매안심센터는 상반기에 758명에게 제공했다. 하반기에도 주 2회, 하루 3시간씩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콩 활성화노력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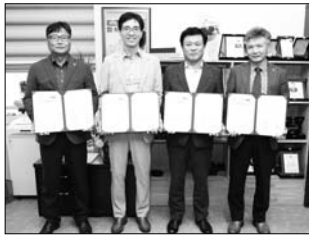
서울에프엔비 ·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 신태인농협, 콩 산업육성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정읍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콩 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22일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읍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오덕근 서울에프엔비 대표, 이재연 농협 정읍시지부장, 황휘중 신태인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콩 유통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나눴다.

정읍시와 농협은 정읍콩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농가들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에프엔비는 정읍콩을 기반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내 용을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정읍지역의 콩 생산확대 현황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농가들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에프엔비는 정읍콩을 기반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정읍지역의 콩 생산확대 현황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농가들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학수 시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콩 생산량에 맞춰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정읍콩 산업육성을 위해 생산성 증대와 품질유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덕근 대표는 "정읍의 우수한 콩 우수구대로 제조 및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프엔비는 영양보충 음료, 건강기능식품, 유가공 음료 등 다수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식문화 웰빙기업으로 서울우유, 스타벅스, 코카콜라 등의 기업 등에서 500여개의 제품들을 OEM, OD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자체 브랜드도 출시해 상품군을 강화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식품 제조업체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22일 오후 3시 정읍역에서 5개 기관·단체에서 훈련요원 110명이 참석해 2023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진행했다.

'2023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진행'

정읍시, 정읍역 폭탄 폭발에 따른 화재진압 훈련 실시

정읍시는 지난 22일 오후 3시에 정읍역에서 제8008부대3대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지원여성 민방위대 등 5개 기관·단체에서 훈련요원 110명이 참석해 2023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위협 등이 대두됨에 따라 재난상황 때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관·군·경이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해 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정읍역에 폭발물이 설치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 이날 훈련은 폭발물 현장 진압 및 경계·방호 활동, 화재진압, 정읍역 주변 통제선 설치, 교통통제 활동, 응급처치 등의 순으로 실제 상황처럼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실제적인 훈련을 위해 군 드론을 비롯한 군 작전차량, 순찰차, 경찰 병력 수송차량, 소방차, 펌프차, 구급차 등 모두 차량 13대, 드론 1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장은 훈련 강령을 통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화해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태세를 갖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지역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연이은 폭염 대비 수목관리 총력 대응

가로수 병해충 방제 작업 실시

부안군은 긴 장마와 태풍 카눈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폭염 등에 의한 읍내권 수목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현재 연일 계속되는 폭염 및 가뭄속에 부안군 전역의 가로수 및 초화류 등이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생육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기후변화로 최근 낙엽수 등에 발생하고 있는 미국흰불나방은 유충이 어릴때는 실을 토해 잎을 싸고 집단으로 모여 식해하다 5령기

이후에는 분산해 잎맥을 제외할 잎 전체를 식해하는 해충병으로 나무가 고사하지는 않으나 피해가 심한 경우 잎을 전부 가해하여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다음해에 수세가 쇠약해질 우려가 있어 병충해 방제에 가용 인력 지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읍내권 전역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교동혼잡이 적은 새벽시간을 이용해 2차례의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과 가뭄으로 쇠약해진 수목에는 원활한 생육을 위해 영양제

를 투입하고 토양개량제를 통해 토질을 개선하는 생육환경 개선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연일 지속되던 폭염이 며칠 비 소식에 잠시 주춤할 수는 있으나 다시 이어질 폭염으로 가로수 및 화단·화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가로수에 물주머니 총4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가뭄이 해소되기 전까지 수목 관수 및 병충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수목과 초화류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 칠보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올 여름 2만명 다녀가

지난달 개장한 정읍 칠보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지난 20일 피서객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을 마쳤다. 총 방문객 2만여명 중 편의 방문객이 1만 2000명에 달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정식 개장한 물놀이장에는 긴 장마에도 불구하고 폐장일인 지난 20일까지 1만 9646명의 피서객이 방문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만 2286명(성인 5949명, 청소년 738명, 어린이 5599명)이 더위를 피해 정읍을 찾은 관외 피서객으로, 휴가철 한산했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피서객의 발길을 불러오는 이유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안전대책, 깨끗한 수질이 있기 때문이다.

물놀이장에는 2000m2 면적의 어린이 풀장과 유아풀장이 설치돼 있고, 워터

터널 워터스프레이, 바디슬라이드 등 각종 놀이시설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피서객이 물놀이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샤워장, 물품보관소, 수유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완비돼 있다.

또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바다청소와 수질검사를 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과 응급구조요원을 상시 배치하면서 큰 안전사고 없이 물놀이장 운영을 마쳤다.

이학수 시장은 "폭염 속에서도 정읍 물놀이장을 찾아온 피서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 부족했던 점을 내년에는 완벽히 보완해 많은 피서객이 정읍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한여름밤의 꿈 콘서트... 26일 읍성앞 잔디광장

고창군이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례를 맞아 고창문화의전당 야외 특별기획공연 '한여름밤의 꿈 콘서트'를 오는 26일 저녁 7시 30분 고창읍성 앞 잔디광장에서 연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대학축제 섭외 1순위 듀엣 경서예지, 글로벌 대세 아이돌 온라인오브, 영혼을 노래하는 가수 뭉치, 고창출신 성악가 노동윤 등이 출연한다.

이번 콘서트는 트로트, 발라드, 아이돌 그룹 등 장르를 넘나들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기획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마지막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말끔하게 씻어내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문화의전당 야외 특별기획공연 '한여름밤의 꿈 콘서트'를 오는 26일 저녁 7시 30분 고창읍성 앞 잔디광장에서 연다. 공연문의는 고창문화의전당 (063) 560-8041.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